

해피밀 시즌 4-2호를 발간하며, 정체성을 바꾸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정체성의 변화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을 통해 죄인의 정체성은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혹은 반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해피밀 2호에는 양 극단 모두에 속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테반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무척 은밀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하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처럼 죽음의 이유와 이후도 서로 달랐습니다.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옵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즉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체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설교처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해피밀을 통해 스테반이 누린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7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나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 하니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원 목사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직 그녀는 남편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이 소식을 들었더라면 남편과 같은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고, 남편처럼 땅을 판 값의 일부를 빼돌리며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부부의 동일한 죄 앞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일이 무척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 저명한 신약학자 F.F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는 마음을 이용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고 싶다는 악한 계획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처럼 부부는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눅 4:12)”**고 말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 10:27)”** 이처럼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리며 순종하셨습니다.

신자는 주님과 동일한 마음 품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욱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강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를 위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삽비라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나요?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복음은 부흥과 회복을 일으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거룩함’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의 무게가 얼마나 컸던지 어떤 신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전에 보여주었던 신앙의 열심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도 심판 받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은 여전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더욱 열심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 여러 이적과 기사들도 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병든 자들이 고침 받는 기적도 볼 수 있었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멈춰 서지 않길 원하십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혹시 이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 “주님께서 나를 버리진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새로운 죄로 인해 믿음의 흔들림을 느끼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자 개개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가 점차 확산되게 하십니다. 즉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적 회복과 부흥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우리의 신앙을 움츠러들게 하도록 하는 것과, 더욱 열심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17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a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핍박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 귀신들린 사람 등을 고치는 기사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에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부흥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야심한 밤에 사도들을 잡아 투옥시키고 말았습니다(**행 4:1-22의 연장선**). 아마도 낮이 되면 더욱 커다란 형벌을 내릴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된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크게 부흥하던 상황이니 만큼 무척이나 커다란 위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 ‘누가’는 사도들의 심리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기록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사도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또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의 핍박과 불합리한 일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옥문을 여시고 신자들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돌보시는 이유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얻기 위해 그들보다 먼저, 더욱 커다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죄로부터 신자들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문제 앞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의 위선과 핍박, 정죄, 불의함 등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을 공격하거나 유혹하는 것들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종교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나의 믿음을 흔드는 공격과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b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2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4 성전 말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 성전 말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 이더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우상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종교지도자들과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밤에 투옥된 사도들을 낚가지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야 종교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처벌함으로 그동안 잃었던 종교적 입지를 되찾을 수 있었고, 병사들은 죄수를 지킴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내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종교지도자들과 병사들 사이에는 ‘실패’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다시금 사도들을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보는 눈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커리어, 자녀의 성장, 건강, 경제력, 사회적 입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야만 나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늘 생명의 말씀 곧 복음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거역하고,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종교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종교지도자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버리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안과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주님이시지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립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종교지도자들이 지키려던 것은 자기 안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적대하던 분이야말로 진정 그들을 지켜줄 수 있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실수를 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우상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회복하게 되셨나요?

Q.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7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이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종교인에서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복음**

종교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들을 심문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왜 다시 전하냐고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꺼렙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기는 커녕 그분을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아 억울하게 죽인 장본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두 그룹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둘 중에 오직 사도와 그 무리만을 ‘증인’이라 부릅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종교인은 입술로만 믿음을 말할 뿐, 믿음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증인은 입술과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종교인인가요, 아니면 증인인가요? 혹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과 타협하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믿어야만 증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와 제자 무리 역시 처음부터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들을 제자로, 증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다시금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죄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읍시다.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다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종교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증인으로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7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만 값이 이것뿐이나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 1) 야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했나요?
- 2)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혹시 어떤 댓가를 치루겠다고 दिल을 한 적은 없었나요?
- 3)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를 회개하고 굳건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8

33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34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6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향해 예수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며 위협하며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종교지도자들의 심문에 정확하고 담대하게 항변하였으며, 또한 성경에서 약속 되어진 증명을 가지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종교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소행을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의인을 죽여서 진리를 막아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서서 상황을 중재합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자와 유다라는 자가 백성을 꺾어 일어섰지만 결국 그들이 죽고 나서 모든 상황이 진정되었음을 그는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결국 원상 복귀 될 것이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그런 죄악을 범해서는 아니 됨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어떠한 위협과 핍박 속에도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을 통해서라도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또한 시험 당하는 중에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풀어주긴 하였으나, 그들의 권위에 도전한 사도들이 너무나도 괴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감정이 심히 상하였기에 사도들을 죽지 않을 정도로 채찍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강하게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가 능히 감당케 하셨던 순간을 떠올려봅시다.

Q. 사도들은 채찍질을 맞은 후에도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중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에게 있으신가요?

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무엇보다 성령충만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성장하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배제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사도들만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으나 갑자기 크게 불어난 교회 살림을 이제 그들만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기에 여러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때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집중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문제는 생겼지만, 이 문제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정작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구분하여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모든 교회 살림을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인데, 사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좋은 인재를 잘 뽑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근원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지는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깨달음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인사는 그가 가진 재능이나 소질보다, 먼저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자입니다. 일부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없어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Q. 교회의 일꾼과 직분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말은 바 충성하여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8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10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성령충만이 가능케 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타났는데 바로 큰 기사와 표적입니다(8절). 이런 큰 기사와 표적은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스테반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하여 반박하고 논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9절).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스테반과 함께해 주셔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과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십니다.

결국 복음을 대적하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감당치 못한 이들은 스테반을 해하고자 하는 나쁜 마음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합니다. 이는 곧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이토록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15절).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공회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주위에서 거짓말로 그를 음해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격받고 음해 받으면 우리는 저절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똑같이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기 위하여 같이 소리 높여서 맞붙게 되죠. 그러나 스테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성령 충만하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에게 성령충만함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루어 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생각해봅시다.

Q. 평상시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은 환난이 닥쳐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1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나 2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형통함의 과정**

사도행전 7장에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은 성경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야기한 성경의 역사는 겉핥기라면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의 설교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다음에 등장하는 요셉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아직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인생 말년이 되기까지 자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생활 해 나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요셉을 부유하고 성공한 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하여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그의 신분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흔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늘 그와 함께하사 그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기에 형통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에 그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채찍질을 당합니다.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누명을 쓰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에 이는 형통하다는 칭함을 받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늘 평안한 삶을 살아야지만 비로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Q. 내 삶 가운데 이해가 안되는 순간과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함입니다.

16 세겔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겔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17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새 20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더니 21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힘을 뺏시다**

오늘 본문에서 스테반의 설교는 모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을 보면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선의가 꼭 기쁨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고 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선의가 동족들의 마음 문을 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선행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9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당장은 우리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스토리는 당장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동시에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후 그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세월을 보내며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힘을 다 빼게 하셨습니다. 힘을 뺏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게에 좋은 상태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자신의 힘을 다 빼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힘껏 주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뿐더러, 또 모세가 젊은 시절 거절당했던 것처럼 거절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내가 죽고 주가 사신다면 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우리의 선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뜻이었는지 묵상해봅시다.

2025년 6월 28일(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사도행전 7장 17-36절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요.



46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예수 안에서 다시보기

우리는 계속해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은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놀라운 신학적 깊이와 지식과 수사적 능력은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목사나 선교사가 아닌 집사라는 사실에 오늘날과의 격차에 제법 놀라곤 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의 이야기들을 접했고, 예언자들의 말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배움을 되집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에 믿음이 생겨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오며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해하고 재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그 속에서 정리되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 생각, 철학이 예수 안에서 재해석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다가왔던 고난들을 예수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배웠던 지식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한 평생 과학자로 이공계에 있었던 박사도, 예수를 믿자 자신이 배워온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고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를 예수 안에서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나온 고난이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스테반은 예수 안에서 재해석한 유대인의 역사를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간절히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51절과 같이 목이 곧지 말라고, 제발 예수 안에서 다시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스테반의 간곡한 요청이 우리의 귀에도 울리는 듯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인생에 이해되지 않았던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신가요?

Q. 예수 안에서 재해석된 나의 지식, 경험, 고난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천국의 상급은**

천국의 상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몇 가지 재미난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천국에 몇 채의 빌라나 펜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상상 속에서 우리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천국도 어쩔 수 없이 빈부격차가 있는 곳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그 분을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하고 그 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어찌면 차등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던지시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테반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수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 그러셨던 것처럼 그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테반 앞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별히 다가오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 서서 스테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서서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 '서있는 모습'은 스테반을 끝까지 지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스테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제 곧 예수님을 자신의 상급으로 얻게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서서 스테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두려움을 참으며 선포한 말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공포,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스테반에게 예수님의 서신 모습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갈망이 해갈될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후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격, 감동이 아닌 어색감 죄송함 수치스러움이 있지 않을까요?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을 대하는 차이로 결정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Q.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흩어진 무리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묘마축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히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무지 가둘 수가 없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놀라운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다. 다시금 복음은 결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일반성도, 신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예수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재해석된 이들을 통해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간추려 요약하고 있습니다. 7-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실 때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며 하신 말씀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즉, 지금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놀랍고 또 설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박해와 고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관점에서 좋고 편안한 방법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요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환란이 때로는 한 성에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묘마축한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예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있는 그 모든 자리에는 예수님의 역사와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열매로 인해 일어난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삶에 현재 일어난 고난과 환란은 무엇인가요?

Q.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가셨나요?

9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예배인가 쇼인가**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이 마술사의 특징은 9절과 11절 말씀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을 '놀라게한다'는 것입니다. 마술은 이러한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놀라게하고, 그 놀란 가슴에 어떤 감흥을 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태도와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골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써 드리는가 쇼로 드리는가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음악의 발전으로 참 다양한 감흥을 자아내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과 가슴을 뛰게하여 흥분시키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임입니다. 시몬이라는 자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들을 놀라게하는 것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이후 그는 계속 이 흥분에 초점을 맞추며 세례도 받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며 기적과 이사를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자신도 하기 위해서 돈으로 권능을 사고자 합니다. 그는 왜 이러한 흥분상태, 놀라움에 목을 매었을까요. 단순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 자신을 주목해주는 것, 자기의 영광을 높여주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자기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가 쇼인가, 진정한 예배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 예배는 나의 영광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입니다. 설교자, 찬양인도자, 세션으로 섬기는 모든 예배섬김이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은 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감정적 흥분, 심리적 안정" 즉 나를 위한 예배로 드리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가? 스스로 질문해볼 때 우리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니면 시몬과 같은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 Q.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Q. 나의 예배는 쇼입니까? 예배입니까?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로 세례 받는 것(16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17절)의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논쟁점이 있습니다. 신학에서 성령의 사역(구원론)을 보면, 먼저 신자는 성령님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회개케하여, 청의되어, 양자삼으신 자들입니다. 즉, 구원론에서 성령님께서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에, 믿음 이전에 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14)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 사마리아인들은 성령을 두 번 받은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곤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부분을 잘못 인용하여, 신자들에게는 믿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강한 충동과 경험을 하게 되는 '성령세례'라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기에, 자신들의 은사집회에 나와 '성령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미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세례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일까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공표를 뜻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리고 사마리아성, 이후 이방인들에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 저 선지자들이 예견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회복의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앗수르로 인해 일찍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앗수르의 정책은 매우 악독하였는데,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이방민족과 통혼 시켰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믿음의 조성의 반열에서 끊어져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다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배도했던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자기 백성, 자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음을 뜻하는 공표인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성령세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Q.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5일(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읽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2) BINGO! 빙고타임! 사도행전 8장 1-7절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예수의 사람

1. 7월 2일 해피밀을 읽고 가정에서 나눌 말씀을 준비해주세요.
2.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3. 고난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경험을 나누어주세요.
4. 부모님께서 기도문을 준비하셔서 가정예배 후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26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 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나를 있게 하는 복음

나의 나 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나'라는 사람은 가치를 얻습니다. 죽음 가운데 전전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꿈꿀 수 없던 자들이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공로, 열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하는 복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일 드리고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리적 이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사자의 인도함에 순종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시가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올새 빌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내시도 기쁘게 길을 가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총명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빌립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소도를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하여, 누군가의 강요에 따라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복음을 기뻐했으며 그를 위해 그의 말간 여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기뻐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귀한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이 변하였으니 아마 매우 기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고,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의 갈 길로 갈 뿐입니다. 참으로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멋진 복음 전파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인생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빛난 인생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열심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빛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 남을 수 있도록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가 이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나요?

Q.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기분이 상하였던 적은 없었나요?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순식간에 깨졌던 경험을 해보셨나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에 혐오감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이전 모습 그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전의 모습들을 미워하고 부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죽음도 마땅히 여기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공문도 마련했습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한 빛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홀연히 비추는 빛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몇 가지 시그널(불기둥, 구름기둥 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귀에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너가 참 고생이 많다. 나를 위한 너의 열심을 다 보고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하나님)를 박해하느냐’. 그는 여지껏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곧 ‘나(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박해하던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굳은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보이고, 교회를 위해 열심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으로 인해 선한 열매들이 있나요? 다른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 가운데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나요? 혹은 나의 열심이 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만 내 주변은 점점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주위 공동체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늘 기쁨과 감사 찬양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가득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까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순식간에 깨졌던 경험을 해보셨나요?

Q. 내 주변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나요?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신실하신 하나님

학창 시절 다수결 투표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수는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야 합니다. 소수는 투표에서 졌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생각이랑 다를지라도 이제는 그들의 의견에 따르고 우리 반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어 다메섹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아나니아를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원수와 같은 사울을 위해 안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환상을 마주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겐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위험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아나니아를 찾아가 그가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보여주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도 니느웨(적국)를 위해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함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들을 기뻐하며 동참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신실하게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의 일을 의심했던 적이 있나요?

Q. 결국엔 ‘하나님이 옳았구나’라며 깨달은 적이 있나요?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8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와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즉시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녀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두 인생이 만나서 살 때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함을 알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180도 바뀌어 버린 사도바울의 모습은 모든 이들로 당혹함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반동불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굳은 믿음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렸습니다. 동시에 그의 인생도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죽음’과도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는 과정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단번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 제자들까지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이전의 그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의 모습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밤 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을 탈출합니다. 그를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바나바와 함께 합니다. 덕분에 그로 인해 교회들은 든든히 서 가고 믿는 무리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갑자기 변한 사람들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Q. 그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나요?

32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3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 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34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35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6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 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39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이거늘 40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은혜의 주인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제가 나타나자마자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의 손에 들린 먹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먹이를 다 나누어주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동물들을 또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동물들은 저를 환영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손엔 먹이가 있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동물들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환영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먹이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을 때만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이방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린 무언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무언가가 들려있든 아니든, 주님께서는 늘 옳다라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인생에는 오직 주님만 남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회복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가 낮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뒤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믿는 결과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적과 회복 자체만 집중하다든지, 한 사람의 인기, 한 단체의 유명만이 남는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결과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바라고 이루어고 노력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구원에서 빗겨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계신가요?

Q.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 신앙생활했던 적은 없나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26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 (없음)

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